



"말씀 · 기도 · 감사의 삶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연중 제26주일

2023년 10월 1일 / 제60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김하얀 / 입당 1 봉헌 511, 210 성체 180, 151 파견 271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Anne Zadra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에제 18,25-28

화답송 |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필리 2,1-11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태 21,28-32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 나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0월 01일	주일학교 YES	Fr. Jim
10월 08일	주일학교 YES	Fr. Bong
10월 15일	주일학교 YES	Fr. Teodoro
10월 22일	주일학교 YES	Fr. Bong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의 비유 '말로만 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과 다음 주일(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그다음 주일(혼인 잔치의 비유), 연속해서 3번에 걸친 주일 복음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곧 소위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 섞인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이는 뒤이어 오는 마태오복음에서 23장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하여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하시며 여러 차례 크게 꾸짖으시는 가르침의 포문을 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혹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남들과는 구분되는 사람들'('바리사이'의 어원은 '구분짓다'와 관련됩니다.)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저 백성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요한 7,49)라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따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대의 수사본 중에는 맏아들과 작은아들의 답변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수사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맏아들, 작은아들의 답변 순서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서는 강조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표현은 '뉘우치다'의 뜻과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작은아들이 하는 대답,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문을 직역하면, '저는(Εγώ), 주인님(주님, κύριε)!'입니다. '저는, 주님(Εγώ, κύριε)'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회심하는 대목에서도 나

옵니다. 다마스쿠스의 하나니아스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환시 중에 나타나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대답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예, 주님.(Εγώ, κύριε)"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할 때 '저는, 주님'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우리말 용례 상으로는 이상하지만, 말로는 아주 공손하고 순명적인 작은아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말 다르고 행동 다른) 태도를 더 극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가르침은, 구원이란 번지르르한 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예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에제 18,27-28)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말로만 "저는, 주님!" 하며 번지르르하게 대답하고 말 것인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며 '의로움의 길'(마태 21,32), 믿음의 길을 실천하며 갈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학교구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5분 묵상

순교자 성월을 마무리하며 선교 사업의 수호자인 성녀 소화 데레사의 축일과 함께 묵주기도 달이며, 동시에 전교의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다섯의 어린 나이에 리지외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결핵을 앓다가 1897년 스물넷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선종하신 성녀는 짧은 기간의 수도 생활이었지만 일상의 단순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고 사제들, 특히 먼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작은 꽃이라는 뜻으로 ‘소화(小花) 데레사’라고도 불리는 성녀는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작은 길을 통해서도 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모든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핀 한 개를 쬐는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성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이스는 직물 짜는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로이스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양탄자를 짜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듯 되물었

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연유로 이런 이상한 무늬의 양탄자를 짜시는 겁니까?』 그때 로이스는 알아들었다는 듯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이쪽은 뒷면이에요. 제가 앞면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로이스는 조심스럽게 그 양탄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양탄자를 짜듯 정성껏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양탄자의 뒷면만 보고 하느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느님의 뜻은 선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온전하신 것입니다. 성녀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장 작은 일들에 충실할 때, 성녀가 말한 대로 길에 떨어진 핀 한 개라도 사랑으로 주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몸소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우리 삶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묵주기도의 달에 성모님께 장미의 꽃다발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렵고 힘들어 실의에 빠진 이웃들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장미 비를 맞아 희망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 굿뉴스 -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10-776-5856</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 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10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0월 13일(금)까지 평일미사 없음(본당 신부 휴가)
- 10월 14일(토): 제26차 미서중부 전체 올드레야 대회
- 10월 25일(수) - 28일(토): 과달루페 성지 순례 (성지 순례 기간 중 평일 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일정

- 기간: 9월 26일(화) - 10월 14일(토)
위 기간 중에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2시 10분 CCOP 미사 참례 권장)
- 주일 교중미사는 몬트레이 이중옥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10월 1일)과 산호세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10월 8일)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4년 달력 광고 접수(1건)

- 새해 달력에 들어갈 광고를 신청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홍보부장 서상일 시몬(650-305-5181)

요아킴·안나회 10월 정기모임

- 일시: 10월 1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 장소: Bray Commons 3300 Finnian Way Dublin, CA 94568 (Dublin & Keegan St. Dublin Kaiser 병원 근처)
- 회원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부모 성체조배 모임 안내

- 영어미사에 참석하시는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 매주 성체조배와 영어 미사 성가연습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 안내 모임: 10월 1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소성당
- 문의: Linda Park(925-858-7037)

사랑의 모후 꾸리아 10월 월례모임

- 일정: 10월 8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북미주 서중부 제26차 전체 올드레야 대회

- 일시: 10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대상: 각 본당의 모든 꾸르실리스타
- 장소: 새크라멘토 성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문의 및 신청: 간사 김선기 시몬(510-579-6695)

PTA 정기총회

- 일시: 10월 15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PTA 전체 부모님

친교 공간 운영 안내

- 친교와 만남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시: 10월 1일(주일)부터 매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체육관 입구 오른쪽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980	-	\$4450	\$70	\$70	\$657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남선숙(1-10), 박종태(7-9), 송형철(9), 이줄리아(12-2/2024), 하창완(9)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박종태(7-9), 하창완(9)

Bishop's Appeal

박종태(7-9), 하창완(9)

지난주 추석 송편 봉헌자

문옥이 베로니카(본당 신부님 어머니)
김윤숙 세레나 / 안영애 사라 / 이정 아델라 /
김흥기 어거스틴·김길자 마리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시노드
For the Synod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for the Church, that she may adopt listening and dialogue as a lifestyle at every level, and allow herself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towards the peripheries of the world.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